



외대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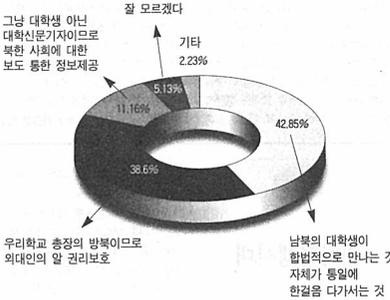
진리 평화창조

1998년 11월 10일 (화) 제725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권 주권 고영훈 편집장 박윤경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51-4151, 962-7120(외) 외대학보 학성기서실 (서울)961-4152, 4468 FAX 961-4153 (홍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270 동문시 모뎀빌 통신사 98

'외대학보 방북취재' 학생 83% 찬성

성사가능성 부정적 반응은 '정부의 선별교류정책' 때문이라고 응답

외대학보 방북취재의 효과는 무엇인가?



평양외대에 대해 알고 싶은 것(가장 많았던 응답)

-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 (ex. 연애, 결혼, 공부하는 모습...)
- 평양외대의 교육내용 (ex. 커리큘럼, 거기도 우리와 있나요...)
- 평양외대의 교육 및 복지시설 (ex. 양국의 학생식당 비교, 장학금...)
- 북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우리학교 학생 83%(312명)가 '외대학보 방북취재'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조규철 총장의 방북에 대해서도 87%(327명)의 학생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보가 지난 5.6.7일(토) 사흘간 '평양외대의 학술교류 협정체결을 위한 조규철 총장 방북'과 관련하여 서울·용인 양캠퍼스 학생 37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조규철 총장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평양의대 방문의 효과에 대해 '같은 외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학술교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49%), '민간차원의 교류의 활성화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48%)라는 답변을 해, 대다수의 학생이 학문적인 차원과 통일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크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 반응에 비해 조규철 총장의 방북 사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69%(255명)의 학생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평양의대의외의 학문교류가 가지는 중요성과 학생들의 관심도에 비해 은밀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대학보의 방북취재의 경우 학생들은 '우리학교 총장의 방북이므로 평양의대의 학술교류 협정체결 보도도 외대인의 알 권리 보호'라는 측면(43%) 뿐만 아니라 '남북의 대학생이 합법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다'(39%)라는 이유를 들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관심은 '외대학보가 평양의대에 가서 무엇을 취재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북한 대학생의 생활', '대학문화'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등 북한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평양외대에도 저러나 공과가 있는가', '동구어권 언어와 지역에 대해 어떻게 연구하는가' 등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구해냈다고 했다.

성사가능성에 대해서는 61%(240명)의 학생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대다수가 '불위기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대학생들 보낼수지는 없을 것 같다'고 주관식으로 답변했다. 이는 통일부가 대북교류에 학생기자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59%(197명)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대부분 '대학생이라고 차별하기 때문' 이거나 '대학생이 진보적이거나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다'는 등인 것으로 보여 결국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는 통일부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의 40%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허가하면서 진보적인 대학생은 안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선별교류 정책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대부분 '대학생이라고 차별하기 때문' 이거나 '대학생이 진보적이거나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다'는 등인 것으로 보여 결국 성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보장하지 않는 통일부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의 40%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허가하면서 진보적인 대학생은 안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선별교류 정책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특별히 예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웃음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이런 정점매미처럼 항상 그녀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주위의 사람들을 믿고, 또 주위의 사람들 역시 그녀를 믿어주며, 우리들의 웃음을 잃게 하는 악(惡)에 당당히 주인공 저항으로, 항상 웃음을 지닌 사람들 속에 함께 하려한다. 그러한 그녀의 노력과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에 언제나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녀 역시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열한 악(惡)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녀의 웃음을 잃게 해라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수 많은 이익과 영예는 웃음을 지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잃어버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그 웃음을 앗아간다.

▲99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얼마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학생회 선거시기 역시 최근 2년동안 보여준 양극화, 교육부, 학교감독 할 것 없이 모든 정보기관에서는 보다 입체적으로 탄압을 진행할 것이다.

만저,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미리 한층원 탈피 반복 등의 발목을 들어 불법연행하거나 그럴듯한 개인인물, 극심한 허무주의의 유포로 대학 당국에서 내보내는 '어용학생회'를 대거 당선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이전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 학생복지위원회의 예산운영 등에 대한 흑색선전 등을 통해 학생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고, 학생회 선거에 대한 냉소주의를 유포시킬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한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사랑과 웃음'을 선사하는 무장을 더욱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비열한 악(惡)의 무리들은 학생들의 '웃음'을 잃게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지지고 힘들어할 때, 학생회는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항거했었으나 그들 역시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좀 더 많은 '사랑과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더욱 함께 저항해야 한다. 그것이 악(惡)으로부터 '사랑과 웃음'의 시대를 만드는 99년 '진평'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대학부장

98민중대회 성사돼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반대' 공동요구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각계 각층이 '민중'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가 됐다.

지난 8일 여의도 한강 둔지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재벌 해체, IMF 반대, 98 민중대회'로 차려진다는 집회에 6만여 명이 참가, '민중의 힘으로 IMF를 극복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결의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예년과 달리 매년 11월 치러지는 노동자대회가 '민중대회'로 차려진다는 집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번 행사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강대국 정권에 분산적으로 대항하던 투쟁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민중대회는 7일(토) 저녁 7시경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라매공원에서 '경리하고 지지, 노동시간 단축, 산별노조 건설, 재벌 해체를 위한 잔야제'로 시작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와 결의의 장으로 6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중이 살만한 세상을

▲98으로 이어질 현대기원공동기자단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반대 98 민중대회'가 지난 8일(일) 여의도 한강둔지에서 노동자·농민·교사·빈민·학생 등 6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연대하여 모은 힘으로 경제주권 회복, 경제패권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지면안내

- 장제교수 구영훈등 주장과 대안..... 3면
- 인간적 정분내내 비리시선은 바로 보아야
- 학인어머나!가 말라있고 있다 4면
- 냉전은 허구였고, 북지정력은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한 '담근'에 불과했으며 제3세계는 석방을 위해 복무해야 했다.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그 이름 '비국권주의'
- 문화기적 '문화, 자본의 그림을 찾아라' 6면
- 문화와 자본이 만났을때, 무슨일이 일어났을까요. '쫓! 알리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자본의 숨은 몸모가 당신에게도 뻗어있거든요.'
- 98 민중대회의 기적 9면
- 98 민중대회가 지난 8일(일) 한강둔지에서 7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생존권 사수' 깃발아래 하나로 분원투진, 청야대에 싸웠던 기운이 돈다는데...

조규철 총장 방북 승인

본보의 방북취재 승인이부는 불투명해

통일부가 지난 6일(금) 조규철 총장의 방북을 승인했다. 지난달 12일(월) 대학원장이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20일만에 통보된 이같은 결과에 따라 우리학교는 평양의대의외의 학술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평양의대의외의 학술교류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단의 연구원리직장 박철(사마리아어)교수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후의 과정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북행과의 어떠한 직·간접적 접촉도 국가보안법상 동선·회향죄에 해당하므로 통일부 허가는 '준비'를 위한 준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대외교섭국은 앞으로 평양의대의외의 연락 등도 중요, 평양의대에 대한 자료준비, 북측에 입성 타진 등을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구체적으로 방북취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아~ 83%

외대생의 83%가 외대학보의 방북취재를 찬성했습니다. 외대인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외대학보가 83%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방북취재를 성사시켜 북한 평양의대생의 생활과 문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일의 물꼬를 외대학보가 트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정계교수 구명운동 주장과 대안

인간적 정분 떠나 비리사실 바로보아야

구명운동, 별 설득력 없어... 학업피해 문제는 최소화해야

지난 23일(금) 대학당국이 단행한 교원 징계 결과를 놓고 일부 과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은 대학원을 포함해서 서울배움터 베트남어과, 러시아어과와 용인배움터 컴퓨터 공학과, 철학과 4곳이다.

먼저, 베트남어과 학생회는 지난 29일(금)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과 총회를 열고 과학생회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 베트남어과는 "조재원 교수가 박승준 전 시사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평공용 등을 확실히 따져 보면 이러한 기강 수위 높은 징계에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재심을 공평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학과와 경우 "학교를 추락시킨 박승준 쓰러지 무리"는 차인택이 휩쓸러 지만 박정근 교수는 분위기에 휩쓸려 나가는 신의 피해자라며 "징계위원회는 냉엄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학과는 교육부 징계의 원인이 된 부정선박 알선 혐의에 대해 "첫째, 교육부에서도 증거부족으로 경징계를 내렸는데 학교차원징계가 어떻게 직권면죄로 될 수 있으며,

둘째, 당시자인 학부도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증거도 없는 박교수가 죄를 더 뒤집어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철학회는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 공학과는 올해 용인 전산소장이었던 한현구 교수가 지난 학기에 가담대학 추진업무가 바쁘다며 교육부 감사를 늦추달라는 공문을 교육부로 보내는 과정에서 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서재명 총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첨부한 것이 징계유인이 됐고 권력다툼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므로 적당면죄 조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어과 또한 "교수들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배움터 징계위원회 총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납득이 될 때까지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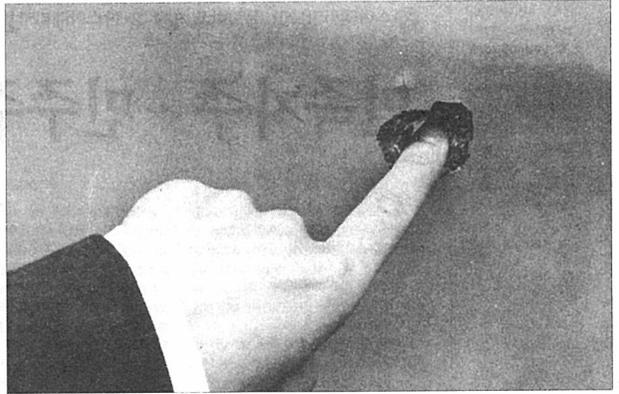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이 그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양배움터 징계위원회는 이미 저·간접적으로 징계를 촉구 혹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온데다 징계교수가 있는 다른 과 학생들도 "징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기 때문,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오승

훈(상경·경영 4)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한다"며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재단투쟁의 과정에서 징계교수들이 보인 일련의 입장과 행동들을 근거로 했을 때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대부분 '교수 당사자는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이 했던 행동이 상황에 휘둘러 징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학기 극소수를 제외하고 재단투쟁에 동조했음을 감안할 때 '외대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모임'이나 '외대정신화합회'의 활동을 한 경우 결코 "그냥 한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 징계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대학당국측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자세한 징계사유는 공개하기에 명예훼손이 되므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도 수업을 강행하는 교수가 있는 등 징계를 받은 교수가 납득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민주적이고 '형'을 늘 손사시키는 행동'일 것이다.

철학과와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징계로 인한 학업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수업안은 물론, 대학원생의 논문심사권 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대학원의 석·박사 논문은 전문 교수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통과되더라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다. 대학원생들이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이유로 징계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이런 이유로 징계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같은 대학원생들도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른 과 교수도 해임됐는데 특정과만 반발을 하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교수가 해임됐다면 '실력있는 교수를 빨리 모셔오'는 것이 대안이지 비교교수를 낙동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지의견이 거의 없는 상태에 징계교수와 일부 학생들이 언제까지 외로운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추후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학교육도 또한 학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부심할 전망이다. 박윤성·류재석 기자



외대의 '아우성'

외대에도 아우성은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한 '대성'이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배움터 교수님들 1등 여자 화성실의 인위 벽에 인근 중학교 남학생들이 돌은 구멍이다. 이와 관련, 매일전 남중생들이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 창가간에 걸쳐 구멍을 내다가 두 임승희 기자

▶나보기 - 단대분리 성공한 동유럽대학 학생회장 주창석(체코 4)군

"수업권마저 포기했던 투쟁의 결과"

공간확보, 지역학 교과 개편 이뤄야

이번 동유럽대학대분리가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 동유럽대학은 80년대말 정부의 북방정책과 맞물려 공산권 국가로 진출하는 인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고 한때 각광받기도 했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시들해지자 서양대학에 편입한 채로 학사행진, 학생자치권 확보 면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서양대학이 정원인 2500여명이나 되는 비대한 단과대를 이루면서 학사행진에서 서대 학생전체에 불편을 가져왔다.

그러서 동유럽 5개 과 학생들은 단대분리를 목적으로 동유럽대학회를 결성하고 10년간 끊임없이 투쟁을 해 온 것이다.

단대분리가 10.12.29에 늦깎이 행진인 무엇인가
 단대분리의 마찰배경이었다. 당국은

졸업생이 적고 사회인식도가 낮아 교수층원이 불거놓는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분리를 미뤘었다.

그러나 대학당국이 진짜 우려한 점은 단대분리에 휘둘러 수백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이었다. 사실 교수층원의 경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대학당국이 추진한 이번 단대분리에 대해 찬양하는 입장은
 단대분리 자체가 10년동안 우리가 투쟁한 성과였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단대분리과정에서 학생들의 논의절차를 무시한 채 교무회의의 결정 사안을 통보해 줄 뿐이었다.

지난 10년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많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커널 동구대 학생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접수조

차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올해 초지된 '단대분리 추진위원회'를 강화, 재태로운 동유럽대 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적으로 독립된 건물 확보에 있다. 현재 어문과는 3개 단과가 밀집되어 있어 학생자치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또 언어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을 지역학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언어기술자'가 아닌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능통한 전문인을 배출하려면 지역학 교과과정이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행정편의주의, 직인 불린 질을 고질적인 문제를 행거구재편과 정에서 끌어내려 한다. 새로 개편되는 만큼 타 단과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혜나 기자

▶일시대 통일교육 - ③ 교육부정책의 문제점

반공교육이 통일의 지름길(?)

최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매를 들고 '금관선 관공사'를 추진을 위해 다시 발족하고 오는 18일이면 처음으로 금관선 관공 유원선이 출항하게 되자 언론에서는 일제 이틀 크게 보도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북돋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은 통일일기하는 반대로 교육부의 통일관련 교육은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교육부의 통일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을 고조시켜 한다.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서조차 통일관련 교과목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그 내용 또한 반공이데올로기 유포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여전히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본보 721호 참조).

또한 통일에 관련된 자료 및 참고고서는 너무 희박하고,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정되어 있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는 미약함과 동시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부의 재교육을 위한 지원은 너무 미흡하다. 특히 현재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대학교수들 중 상당수가 여과없이 반공이데올로기

중심의 북한 교육과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방식을 교육 받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통일내용 중 상당수가 반공적이고 통일을 함께 준비해야 할 북한을 '적'으로 규정짓는 것이라든가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밀발할 수 있는 교육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통일관련 도서 및 자료를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며, 교원들은 보편적 통일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자료를 근거삼아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에대해 한국대학교연구소 연구원 임희성은 "대학에서도 통일 교육

과 관련한 교과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함과 함께 북한 사회와 남북통일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를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라도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 의식을 강도 높여 노력해야하며 통일이 대한 인식을 더욱 견고하고 있어야 한다.

명재권 기자

F/B/S

1998년 11월 11일 오후 4시

자연대 강당에서

외대 교육 방송국이

연어 떠러졌습니다.

방송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산 F/B/S

1998년도 전기 (일반전형)학생모집(주간)

1. 모집과정, 학과 및 인원

과정	학과	전원	인원
경영학석사	경영전신석사	MBS	02명
		정보·회계	02명
		경영관리	02명
		조직·인사	02명
이력석사	경영전신석사	조직·인사	02명
		회계	02명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9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장양식, 사전4cm, 4cm x 5cm)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졸업증명서는 교육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다. 입학후의 학업계획서(입학지원서 후면 앞뒷면에 기재)

4. 전형방법
 가. 영서시험 및 구술시험

5.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998년 11월 27일(월) ~ 11월 13일(금)
 나. 시험일정: 1998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다. 시험장소: 시험당일 본 대학원 교학과에 게시함
 라. 합격자 발표: 1998년 11월 27일(금) 오후 3시 이후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토요일은 휴무로 지원서 접수를 하지 않음. (평일: 오후 5시까지)
 다. 입학비용: 5,000원 / 생활료: 60,000원
 ※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전화) 965-7026, 961-4119
 ※ 한국외국어대학교 - http://www.hufs.ac.kr
 경영정보대학원 - http://sosome.hufs.ac.kr

명영정보대학원장

연수원생 모집

(20주 정규 주·야간 과정)

■ 모집학과
 영어, 일반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불어, 일어언어 등 24개 언어

■ 대상
 18세이상 자격제한 없음

■ 교육기간
 1999. 2. 1(월) ~ 6. 18(금), 20주

■ 수업시간
 주간 09:00 ~ 16:50, 1일 7시간 (주5일)
 야간 18:30 ~ 21:20, 1일 3시간 (주5일)
 (15명 이내로 반편성)

■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11. 9(월) ~ 11. 27(금) 09:00~21:00
 신청순 마감

■ 문의처
 연수원장인 연수부 (961-4174 ~ 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특별기고 - 영 어공용어화와 국한혼용론은 무엇을 노리나

말은 생각을 낳는 도구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영향력 강화 측면 강해

1.한문 타지가 좀 고되고 싶다.

지난날 공병우 박사가 자기 모든 삶을 바쳐 한글 타지를 만들고 널리 보급하는데 애를 썼다. 이제 생활이 아주 널리 퍼져 굳이 타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한문 타지'를 만들었거나 널리 보급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셈을 자란 한글을 가장 손쉽게 빨리 칠 수 있도록 두벌식과 세벌식이 거꾸로 글자꼴을 놓고도 더 나은 한글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그리고 앞으로는 글꼴을 만들든 타지를 만들든 애를 써 왔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나 한자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해서 한자 글씨를 빨리 타지로 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쉬운 보기로 한자 하나를 치려면 먼저 한글을 친 뒤 다른 글씨를 누르고 찾아야 칠 수 있다. 생각해보자. '한자를 곁에 데려다서(국한문 혼용)' 쓰면 전신과 나빠질 수 있는가? '국한문용'을 이야기하며 한자와 한문까지 헷갈리는 것이 아주 많다. 한글과 맞서는 이는 한자로는 '꼴'이다. 한편 한문은 '말'이다. 그래서 한자는 글씨를 써야 한다. 전신과도 결합될 때 이를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한문을 잘리면 조선, 고려, 삼국 때 한문을 배워야 한다. 우리 지난날 업적 가운데 우리

글자가 있어 한문을 빌어와 남긴 문화 유산을 우리 글자와 우리말로 옮겨내는 일을 할 때 한문을 써야 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 한문을 써야 할 곳이 있을까? 어느 사람은 중국과 일본과 수교할 때 한자를 알면 좋지 않나고 하고도.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그 어려운 한자도 애를 써서 '간지체'라는 글자를 새로 지어 내 지금 우리가 쓰거나 배우는 한자의는 거의 모든 글자가 틀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한자를 써도 중국과 일본 사람은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가 한자를 배운다고 꼭 우리 나라 안에서만 몇몇 사람에게 들릴까 나 쓸 수 있을 뿐이다.

우리말 열거와 발본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말로 새 말을 짓고 바깥말을 우리말로 제대로 옮기는 (번역)의 바탕을 닦아 줘야 한다. 바깥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도 우리끼리 나누는 말 속에도 아직 일체 식민지 제국어가 남아 있으면서 우리말과 맞물림과 피어싱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채 영어를 접어들기(중립)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 따라 지금 우리가 보고받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아야 한다.

2.'조선일보'속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

조선일보는 요새 최장집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임을 놓고 사상 시비를 걸어 낸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 얼마 일하는 북중 사간 바람이 일 때 북극기를 데려와 '영어 공용화 논쟁'을 일으켰다. 지금 '조선'이 최장집 논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김대중 정권 개혁 정책 결정을 노릇과 한나라당 극세화 비리와 관련된 총격요청 시비를 흐리게 하려는 속셈이 있다. 더불어 정부가 이어가는 개혁 정책속에서 재벌이 힘을 잃도록 하고 지난날 권력 시너지를 인문은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에 반공과 냉전시대정국을 다시 부추기려 한다. 영어 공용화 논쟁은 실익이 세계화로 모든 농산품과 국내 시장을 박살낸 우루과 리관세 협정과 마진치가 우리말로 우리 거래상(민족상)을 버리고 북과 북 화해 흐름을 가로막는 구실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세계화와 관련된 시비라고 하며 자유를 키워줘야 '우리'라는 공동체와 '한자체'라는 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한다.

국한문 혼용을 외치는 이는 거의 모든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이데올로기 최장집 논쟁을 통해 드러냈듯이, 지난날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속셈까지 안고 있다.

3.북극기일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스스로 자유론자라고 하나 북극기일은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주고 김철삼 3당 아합을 두고 '내화합'이라 하며 이러한 뜻에 자유를 집어 넣었다. 이제는 한글을 더 나아가 김영삼 세계화와 함께 우리 겨러도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 민족주의의 관념을 버리고 자유를 더 이상성고 보편성을 찾고자 말을 한다. 정권을 전할하고 살만인 아닌 모든 농산품과 모든 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비굴하고 손에 보내주면서 세계화를 외친 자유도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세계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필자는 사람은 자유는 몇몇 사람에게는 이로운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은 자유는 몇몇 사람에게는 이롭고 더 많은 사람은 자유는 결코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보편성이라 하여 엄청난 경제 손해를 무한대로 매기는 돈이 영영어공용화론에 상충할 수 없다. 나라 실익은 허리띠를 졸라매려 한다. 우리 교육 열거는 돈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지런 돈을 살뜰한 관리가 빠가자니 임시 만능 위주, 영리만능 운동 선수 키우기와 비례해서 인사 척박해 새나가고 있다. 우리가 쓸 돈은 사회개혁과 함께 교육 열거를 바로잡아 지난해 총학생회 기쁘고 국영수 역시 위주인 교육 열거와 학생을 으름으로 치는 사회열거를



영어(조기교육) 열거를 본다. 이의 무리들이 익숙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되는 '영어조기교육'은 문제가 있다.

성·정식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열거를 하며 자기 삶을 북돋우며 주체성을 기르는데 써야 한다.

4. 나라말을 힘으로 살리는 길은

말은 생각을 낳는 도구다. 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생각을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익히고 사회 열거를 헤아려야만 나라 말과 열거는 사회개혁을 위한 열거로 갈아야 한다. 결코 어렵지 않은 사상과 철학을 고라리본나게 가르치고 국영수 역시 위주인 교육 열거와 학생을 으름으로 치는 사회열거를

바로 보아야 한다. 수구 기득권 세력 이데올로기를 다시 날고자 하는 주의주장으로 영어공용화와 국한혼용을 이야기나 나온다. 외교와 무역에서 영어를 배울 개략과 우리 고전을 한글과 우리말로 옮길 필요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할 몇몇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어와 한문에 목을 매달아서는 안 될 줄 안다. 더불어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면서 나라 살리기 조드느 관에 돈을 써도 제대로 일을 생각하라고 한문 썼고 열거를

최우주 (서양·비평론자 2)

내버리는 '불교'의 옛모습, 세계인의 문화를 소개하는 평론이다.



<4>멕시코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I

죽음, 삶의 연장선

멕시코인들만큼 죽음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도 드물지 않다. 매년 11월 1·2일 양일에 걸쳐서 행해지는 '사자(死者)의 날'은 다른 어떤 기독교의 명절, 즉 할로윈 데이에도 다른 아니다. 소수 백인 계층을 제외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스티소나 정복당원 원주민 후대인 인디오 계층이 할로윈의 꽃무늬 '연탄한 색의 열거'를 보인다.

이날을 맞아 멕시코의 모든 가정은 제사상을 차리고 갖가지 특별 정음음식을 정만하고, 사자들이 한을 의자등을 준비하고, 또 매년 돌아오는 조상의 열거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집 때문에 노란 꽃잎들을 길게 뿌려놓는다.

11월 1일 자정, 교회의 종소리가 12번 울려 퍼지면서 이 의식은 피크에 달한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초를 준비하고 묘지의 불을 밝힌다.

그리고 무덤 주위에 놓아놓은 기도문을 외우고 눈물을 흘린다. 이 예외적인 기억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행하는 여우러져 있는 신자와 죽은 자가 함께 만나는 의식이 이다.

그러나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사자의 날'이 단순히 죽은 자, 즉 조상들의 열거를 기리는 의식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이경간처럼 할 순간에 무덤 한편에서는 기타 반주에 맞춰서 특별하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고, 도를 넘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보인다. 그러나 불경스럽게 보일 수 도 있는 이런 소란스런 행동은 죽음에 대한 모욕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슬픈 예외의 의식을 넘어서 비호전적 의미, 즉 새것과 옛것·과거와 현재·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는, 민중의 대륙제에 가깝다. 이 극과 극의 대조적인 양상에서 멕시코

인의 삶과 죽음은 하나가 된다. 이 엄숙하고도 정중한 제사를 통해서 신자는 죽음의 예행연습을 한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이 '사자의 날' 기간 중 서로 주고받는 해골 캔디와 해골 초콜릿 선물(팔자 또한 멕시코 유적이기 때문으로 부터 내 이념이 비평가로써 있는 해골 초콜릿을 선물 받고 경악했던 적이 있었다)의 정물이다. 그것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한 신 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일과 동시에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메시지다.

그것은 죽음을 긍정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하려는 가르침이다. 한편 이날 벌어지는 해골 인형(머리 중세시대 죽음의 무도회를 연상시키는)은 멕시코인들의 독특한 사색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죽음을 조롱하고 심지어 찬

양, 축복하는 멕시코인 들의 유머와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해골이 산 자들을 향해서 깔깔거리며 웃고, 멕시코 전통의 허리띠 춤을 출때, 우리들은, 우리들 신자가 이 그로테스크한 추상적 죽음을 조롱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사신, 그 해골 산과 뼈로 이루어진 우리들 신 자를 놀리고 아우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란 열거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기묘한 행위를 실상 멕시코에서 유행하는 멕시코인 들의 이 의식은 바로 에나니즘적 인식론, 즉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제적 세계, 곧 죽음이 곧 삶의 연장으로서, 삶과 죽음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의 연속체로서 융합되는 멕시코인 들의 이 의식은 바로 에나니즘적 인식론, 즉 유기체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멕시코인들의 조상숭배는 결국 이러한 존재의 영성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대와 세대 간의 연계를 의미하며, 그러한 세대와 세대와의 연결은, 다시 말해 멕시코의 문화 또는 문명의 축은 바로 이 '사자의 날'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서성철 (서버이과 기사)

생활 시평 '참여'와 '노력' 사이

학생들의 '의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의견제'는 물론 우리학교에 도 미러되어 있다. 그러나 의견제 있다는 사실도 함께 그 사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으나 인식하고 '이'인 것은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이다.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행위를 이끌어 내 생활화생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이다.

이런 절름같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이용을 조조는 부른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내배터 학생회 1층을 거닐다보면 눈에 띄는 곳이 있다. 생활화생위원회의 바로 앞쪽에 설치된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한미어 제안이라는 코너다.

후문 바깥의 게시판에 차례대로 붙여진 사용지, 그곳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생활화생위원회의 성의있는 답변이 담겨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참여는 이전의 '의견제'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

이다. 학생들은 '복' 사안에 대한 의견제 진 뿐만 아니라 '교복문제' '물대개 명지'에 관련된 '소문' 등 다양한다. 직접 문제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학생들도 함께 그 사안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었으나'라고 인식하고 '이'인 것은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이다. 이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식행위를 이끌어 내 생활화생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이다.

이런 사례는 요즘 양배터 화강상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용인배터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마련한 '내학연영위에 바'라는 '사'에 대해 '영'인 문제에 고민하는 '모'에서 준비한 '실'연영위에 대한 한미어 라는 낙서란, 종이의 불행에 화강상에 설치한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한미어 제안이라는 코너다.

다교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관심'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작은 '의견제' 하나일지라도 학생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한문 썼고 열거를 너무 성급하다. 문화부

생활 문화 화만

대학문화의 생성과 탈주

이동현의 지음
문화평론 4,000원

구성애의 성교육

구성애 지음
성학 6,000원

디지털! 돼지들?

문은 302-451
권광로 7,000~8,000원

소비문화 공간에 의해 견고하게 포위되어 살아가는 대학생들. 대학공간 안에서 운동요보다 신체적 기교가 더 많이 발휘되고 감각과 정교로 가득한 열거를 경험하는 캠퍼스를 관주한다. 그렇다면 대학문화는 이제 죽은 것일까? 필자는 대학문화의 위기를 인정하면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소비문화가 대학문화의 진보성을 무력하게 한 것이 아닌, 한편으로 비판적 문화공간을 생성했다는 데 필자는 주목한다. 언더그라운드 클럽엔트, 독립영화 소모임들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책은 대학문화는 비판적이면서 생산적인 재검이며 실험정신을 내장하고 있어야함을 주장한다.

요즘 최고의 주제를 유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심을 위하여'란 열거를 펼치고 있는 구성애이다. 그간 강의내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 책으로 나왔다. 필자는 타부사하는 성, 유행한 성이 아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경고와 보내고 남녀의 사랑은 즐거워야만 해 될 수 있는 '솔직한 성'을 제안한다.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행 대책만, 우리시대 바른 성 도덕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비단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디지털! 돼지들?' 이 오는 13일(금)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대학로 은혜나무주점에서 열린다. 연분산용 명예비판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 작품은 상상에게는 무한한 부하직업으로 20대 후배사원업에서는 구세대와 다를 바 없는 상으로 각인 된 자신을 비하한다. 결국은 목숨을 걸는다는 줄거리다. 극의 진행양상이 매우 독특한데, 인터티브, 즉, 관객이 직접 스토리를 결정하는 연행양식이다. 주인공이 극적인 장면에서 관객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묻고 관객의 대답에 따라 극이 바뀌는 형식이다.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9월(월)	10월(화)	11월(수)	12월(목)	13월(금)	14월(토)
25(수)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26(목)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27(금)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28(토)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29(일)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30(월)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연극 "인간을 넘어" 연극대, 대학 2,221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요일	월	월	월	월	월
월	소고기부우국 (W1,000)	소고기떡볶음 (W1,500)	왕갈치김밥 (W1,500)	무엇이든국 (W2,000)	콩나물국밥 (W2,500)
화	바삭갈치찌개 (W1,300)	삼계찜닭 (W1,400)	판보쌈 (W1,400)	동태우국 (W2,000)	순두부찌개 (W2,500)
수	참치김치찌개 (W1,300)	탕수육김밥 (W1,500)	비프하이리츠 (W1,400)	콩나물김치국 (W3,000)	떡볶이국 (W3,000)
목	볶아국밥 (W1,500)	소고기국밥 (W1,500)	찌개 (W1,300)	호박고추장찌개 (W2,000)	애호박김치찌개 (W2,500)
금	두부된장찌개 (W1,300)	행운수수현물밥 (W1,300)	오징어숙회밥 (W1,300)	대구우동국 (W2,000)	떡볶이국 (W2,500)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탕류
월	간짜채밥 (W1,800)	삼계탕 (W1,800)	오징어떡볶이 (W1,800)	해동고추장찌개 (W1,800)	우거지간장국 (W1,800)	우거지김밥 (W1,800)
화	해동삼계탕 (W1,800)	왕갈치김밥 (W1,800)	판보쌈 (W1,800)	호박고추장찌개 (W1,800)	우거지간장국 (W1,800)	우거지김밥 (W1,800)
수	해동삼계탕 (W1,800)	왕갈치김밥 (W1,800)	판보쌈 (W1,800)	호박고추장찌개 (W1,800)	우거지간장국 (W1,800)	우거지김밥 (W1,800)
목	간짜채밥 (W1,800)	삼계탕 (W1,800)	오징어떡볶이 (W1,800)	해동고추장찌개 (W1,800)	우거지간장국 (W1,800)	우거지김밥 (W1,800)
금	간짜채밥 (W1,800)	삼계탕 (W1,800)	오징어떡볶이 (W1,800)	해동고추장찌개 (W1,800)	우거지간장국 (W1,800)	우거지김밥 (W1,800)

298 외대학보

가짜는 정주영과 소떼, 그러나 대학생은

"김정일 장군은 언젠가 내게 껍질이 예의를 갖춰 대해왔다."

지난달 27일(화) 소 5백 마리를 싣고 북한을 방문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말이다. 언론은 그의 방북이 남북 경제협력과 화해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일(화) 판문점을 통해 북에서 남으로 돌아온 한 여대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속에 정씨가 방북을 마치고 귀환하자 정씨는 사흘 뒤의 일이었다.

황선(학성여대, 국문과 94학) 그는 지난 8월 7일 남북의 자주교류사업을 펼치기 위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방북했다. 하지만 '이적'이라는 정부의 잣대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동양의 열망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방북의 성격은 방북대표가 2달여간 펼친 '남북한의 통일교육' '북녘역사문화 유적답사' 등의 활동만 보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이적친일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끝내 한총련 대표의 방북을 불허했고, 황선 등의 방북대표는 제3국을 거쳐 북녘방향을 밟아야 했다. 정주영씨는 너무나 대표적이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학생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던 국가보안법도 정씨는 예외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를 '장군'이라 부르고 방북취재일정도 연기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불러 나도 '장군'이라 불러야"는 정씨의 말 한마디로 '교무위원' 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3일(화) 한총련은 '학생의 날'을 맞아 지역별로 '반미자주 조국방위 선전대회'를 개최해 황선 대표의 강제연행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주(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군은 "재미가 북으로 가면 북임을 위한 활동이라 칭송받고, 학생이 북으로 가면 '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순이다"라며 "금강산 유람선도 모든 미당원이 각계각층의 차별없는 교유는 단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이 있고 없음과 지위, 정권의 차이로 통일을 향한 열망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현민족'이라는 당연한 민남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사회부



만나보기 - 민권공대의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

"국민의 정부와 양심수는 같이 존재할 수 없다"

"내가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 도와주어야 하는 생각이 운동 일선에 뛰어 들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회운동을 하기에 계기를 밝혔다.

동일운동을 하면서 홍근수 목사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목고를 지냈다. 90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되어 자신의 신념과 사상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샀다. 하지만 목회 활동에 비하면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 시범을 직접 맡아 다니고 토론회 등 사회발전과 조국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움직이고 있다.

"전 민중을 위해,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보내진 것이 교회입니다"라며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표명했다. 이는 홍근수 목사가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데토로 작용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봄(3월 13일) 양심수 석방은 너무도 미비했다. 4백여명의 양심수 중 74명만이 석방되지 않았다. 이리해서 8·15 특별사면 때는 학생,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재인사자들이 탄생을 가지고 무장해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8·15 목사

때 '준법서약'이 갑자기 시행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양심수가 석방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8월 20일 발간인 대회를 갖고 9월 2일 평민회에서 정립 총회를 가지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철폐,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활동할 민권공대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홍근수 목사는 "민권공대위원은 모든 양심수가 석방될 때까지 무장할 것입니다"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민권공대위원의 향후 활동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민권공대위원은 홍 목사의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가능한 모든 무장의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는 말처럼 범부부 항의분포, 가두 홍보전, 집회, '양심수 없는 나라' 월간 발행, 기자회견, '시와 문화의 밤' 등 다량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출범이후 8개월 동안 양심수를 가장 적게 석방했고 반면 가장 많은 사람을 양심수로 만들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양심수, 비정당한 장기수가 있다는 것은 인권 대항이라는 말의 허울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소신, 자신의 믿음이 죄라고 감옥에 가는 것은 말이 되지! 백여명이 아직 감옥에 갇혀있어"라고 "김대중 대통령 자신은 과거에 쓰지 않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권이 누구보다도 민감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사회 현실에 너무 무관심하게 사살이다. 홍 목사는 "서명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라고 얘기하면서 청년학생들에게 대충 충고도 잊지 않았다.

50년간의 부패한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방 남침 흘렸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어느 정권과 다를 바 없이 민중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는커녕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이적단체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수의 양심수를 배출하고 있다.

현정부가 진정한 국민의 정부여기를 버린다면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정책의 구조적인 개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며 아무런 죄없는 민주인주 운동체제를 시대의 약법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근수 목사는 민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가 제일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열매와 가치를 심어주는 홍근수 목사의 소망처럼 자주·민주·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씨를 만나

준법서약 철폐를 요구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향기만표를 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5일 가식방민 송계호(전남대 89학번) 씨가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농성단에 합류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송소한 송씨가 농성단 합류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민중 농성에 들어간 김대중에게 이미 '재수감' 경 고장이 나타났다. 재수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가 재수감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내 양심을 집어넣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또 구속 중인 양심수들의 문제는 더더욱 큰 부담이었다. 다른 활동들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농성투쟁을 통해 양심수와 준법서약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와서 농성투쟁을 시작하면 대의보다는 개인적 이유(아내나 병환) 때문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송소한 나로서 많이 후회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

구속중인 양심수 문제가 더 큰 부담

신감도 없었다. 철저히 싸우면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싶었다. 나 뿐 아니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많은 양심수들이 무언가 마음에 걸리고 또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는 상상을 토로한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변질될까 보고는 변질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준법서약서 제출을 할지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더라도 자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담보되면 더욱 현명한 삶이 될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다른 송소자들로부터 반응이 없거나 한총련 동지들로부터 농성에 합류 못해 미안하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지금 당장 농성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뛰어나고 좋기도 하다.

농성투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가
말마타 용된 힘을 발휘하는데 따라 판 가름나고 본다. 양심수 석방과 준법서약 폐지에 대한 역량이 모이면 빠른 시일 내에 농성도 정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든 인권단체와 준법서약서 제출자, 한총련 탈퇴자, 국가보안법 피해자 등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부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력·전과 차별금지

구별된다. 공추위는 "법무부의 인권법이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구분함으로써 차별행위는 인권침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라며 인권위원회가 모든 인권침해를 관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안)는 법무부 안에서 빠져있는 △사상·성적지향의 사유 △병력 △행형 기록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므로써 잠재적 신념이나 사상·복종의 기록,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추위의 인권위원회(안)는 국가기관을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둔다는 대한 원칙을 재차 인한 가운데, 인권위원 임명시 민간단체의 의견제시가 가능한 국회 청문장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산청산에서도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평행해 대립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권한 문제의 관련, 공추위의 인권위원회(안)은 출석요구·자료제출요구·현지조사권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관(개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치를 함으로써 불응을 하는 것은 경찰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사적 사안이 구제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국가기관의 경우엔 징계권을 가진 삼급기관에 신청해 그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안보다도 실효성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같은 공추위의 인권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무부측과 민간단체간의 논쟁이 계속됐다. 법무부 측무근 인권과장은 중정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권과 달리 '이사회'를 두지 않는 법안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의사를 내

비쳤다.

이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국제사법위원회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5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인권고언에 따라 시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법무부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권,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인권고언(과외 원칙)에 대해 차치문 변호사는 "유엔에서 인권 기구에 법안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만큼, 꼭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법안'안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없다고 해도 법안은 감독기관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라며 법무부 법안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상이 모두 나의 스승이고, 사람이 모두 나의 거울이다.

여러분에게 열풍만큼의 계산이 있다면, 닷푼은 친구를 만드는 일에 나머지 닷푼은 여행길에 쓰십시오.

친구만큼 큰 인생의 계산은 없고, 짧은 날의 여행만큼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모두 내 것이 될 것 같은 계절, 가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얻는 배울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는 진정한 결실의 계절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있을까요.

철감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